경제혁신 3개년계획 | 대한민국 제도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6년 5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11(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5. 11. (수)	담당부서	투자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채 과장 (044-203-4070)	담 당 자	박석주 사무관(044-203-4072) 최광준 사무관(044-203-4071)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일관계 회복 전환국면(모멘텀) 살려 양국 간 투자, 교역 확대해야”

- 서울재팬클럽 주최 오찬 간담회 참석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월 11일(수),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5.11(수) 12:25~13:45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네트스위트(37층)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까지 공개
▸ 참석자 : 정부,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대표, 코트라(Kotra) 등 60여명
- (정부) 산업부 장관, 무역투자실장, 투자정책관, 건의 관련부처 국장 등
- (서울재팬클럽)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
-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대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이날 간담회는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방안**과 주한일본기업의 대(對)**정부 건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 양국간 **경제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과 관련하여,

- 일본은 한국에 379억 달러를 투자한 **두번째 대한 투자국이며** 양국이 **서로에게 3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한 점을 평가했다.

- 그러나,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매우 낮고**,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현재의 경제 **협력수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 특히,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 등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 국면(모멘텀)으로 양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상호투자와 교역을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로,

- 서로 상생(win-win)하는 산업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가치사슬(벨류체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소재·부품 분야,**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신성장산업 분야**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으로 사업 분할, 합병, 매각 등 사업재편이 용이해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한류를 활용한 **유통·물류, 관광·레저,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

- 양국 기업이 협력한다면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이 유망한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제시했다.

□ 한편, 주한 일본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주 장관과 관계 부처는,

- ① 케이(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산업부) ②**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 삭제**(복지부) ③**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고용부), ④**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재부), ⑤**전기제품 국가표준(KC)인증 취득요건 완화**(국가표준원) 등 5건의 건의를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 **특허 무효심판·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주 장관은,

○ 서울재팬클럽이 설립이래, 지속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주한 일본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처럼,

○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 044-203-4070), 박석주 사무관(☎ 044-203-4072), 최광준 사무관(☎ 044-203-4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발언내용은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재팬클럽 주최 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
장관님 모두말씀

2016. 5. 11(수)

산업통상자원부

《애도 표시 및 인사 말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우선 최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모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끼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님과
회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국 협력 성과 및 향후 과제》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여러분,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관계 증진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397억불을 투자한
두 번째 대한(對韓) 투자국이며

* 對韓 투자 누적액('15년 말, 억불) : 미국 624(24.2%), 일본 397억불(15.4%)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00배 이상 증가하여
서로에게 세 번째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였습니다.

* 양국 교역규모(억불) : ('65) 2.2 → ('15) 715

하지만 그간의 협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양국, 나아가 한·중·일 3국의 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2위, 3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3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양자 혹은 3자간 경제협력 체계도 가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중·일 3국은 EU,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비중은 EU, NAFTA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역내 교역비중 : (한중일) 22%, (EU) 67%, (NAFTA) 40%

전 세계가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일 FTA는 아직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한일 양국이 중심이 되어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FTA와 RCEP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관계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 최근 한일 교역현황(억불) : ('12)1,032 → ('13)947 → ('14)860 → ('15)715
일본의 對韓투자액(억불, 신고) : ('12)45.4 → ('13)26.9 → ('14)24.9 → ('15)16.7

미끼 야츠유키 이사장님께서
최근 한 경제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진 강점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
우수한 지재권 보호제도와 함께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가 적고
사회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진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미키 아츠유키 이사장 「이코노미 플러스('16년 4월호)」 인터뷰

《한국 투자협력 유망 분야》

이사장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는 오늘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네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국이 서로 win-win하는 산업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
생산 설비의 경쟁적 증설과 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통해
서로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며
상처뿐인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선의의 경쟁은 추구하되
산업내 분업을 확대시키는 협력을 통해
양국이 win-win하는 구조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기능성 화학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미쓰이 화학과 SKC, 미쓰비시 화학과 삼양그룹 등
양국 기업간에 기술 개발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합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미쓰이화학 + SKC : 폴리우레탄 재료 제조공장 설립
미쓰비시화학 + 삼양 : 차세대 이온 교환수지

그러나 여전히 한일 양국 기업 간
유기적 분업관계 구축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서로의 강점과 비교 우위를 살려
경쟁을 뛰어 넘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이 일본 자동차에,
최첨단 일본산 소재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공정에 채택되어
서로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한일 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모두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을 통해
IoT, AI, 자율주행, 드론, 바이오의료 등을 포함한
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을
5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앞으로 총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최고 수준의 금융, 세제, 재정적 지원을
설비투자, R&D,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이업종 간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세 가지의 기본 틀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과 상호 제휴, 투자가
필요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해
최대 7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목록을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간
공동 R&D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융합 우수기술연구센터 육성(ATC) 사업 :'15년 46억원→'16년 70억원

한편, 우수한 기술력과 핵심 역량을 갖추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일본을 비롯하여 국내외 자본, 기술력과 결합하여
핵심 역량에 전열을 정비한다면

* 일본 스미모토 화학과 삼성LED간 합작을 통해 SSLM를 설립('11년)하였으나 '13년 삼성 LED 지분을 전량 매입하고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15년 1.4억불)

다시 한 번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사업 분할, 합병, 매각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강화된 세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어
여러분께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입니다.

그동안 양국이 화학, 전기전자, 소재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협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유통·물류, 관광·레저,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로
양국 투자 협력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최근 동북아 환적 화물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세계 4위의 종합물류업체인 일본 통운,

* 일본통운(Nippon Express) :
  부산 신항 배후부지 내 아시아 물류센터 착공('15.6월, 1,200만불 투자)

호텔 체인 도요코 인(Toyoko Inn),

* 도요코 인 개발(Toyoko Inn Development) :
  서울(1), 부산(4), 대전(1) 등 숙박시설 투자(920만불)

일본의 게임 전문업체인 폴투윈(Pole To Win) 등의
대한국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 일본 폴투윈(Pole to Win) : 온라인 게임 품질검증, 고객서비스 업체로
  광주에 한국 법인 설립(47만불 투자, 향후 200만불 증액투자 계획)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최근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한류 붐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를 지닌 한국산 소비재와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네트워크 및 마케팅 능력을 결합한다면
일본 시장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투자 협력을 통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투자협력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미 인프라·플랜트 건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대우건설과 미쓰이 물산의 모로코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 등

한일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 :
  한국가스공사-日미쓰비시 공동 지분 참여, 2030년까지 생산물량 245만톤
* 모로코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12억달러, 350MW 2기) :
  미쓰이물산, 대우건설(EPC시공) 공동 건설

일본 종합상사의 정보력과 네트워크,
일본 상업은행의 파이낸싱 능력과
한국 기업의 시공 능력을 결합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3국 공동 진출 분야를
스마트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유통망을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
양국 기업이 함께 해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I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과
일본의 세계적인 의료장비 기업이 협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 IT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기술력 보유
  일본 : 도시바, 히타치 등 CT, MRI, 초음파 진단장치 분야 글로벌기업 보유

《당부말씀》

서울재팬클럽 회원사 여러분,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애로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직접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및 외투기업 CEO분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가
주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의 검토 의견과 향후 조치계획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노무, 환경, 조세, 입지 등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책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방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유망 투자 분야와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일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재팬클럽이 1997년 설립이래,
지속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한 일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